

동화책 큐레이션

어른을 위한 동화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나는 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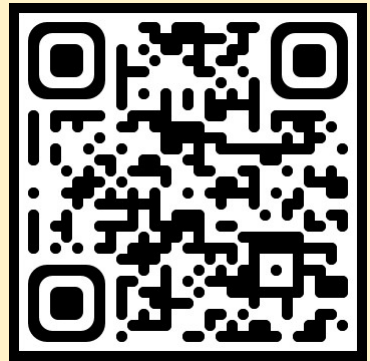
01

「어른을 위한 동화」 큐레이션

기간: 2026. 10. 12.(월) ~ 10. 31.(토)

내용: 어른을 위한 동화

주제: 가족, 역사, 이별, 자아 관련 주제 도서 총 16권



큐레이션 페이지
바로가기



가족



역사



이별



자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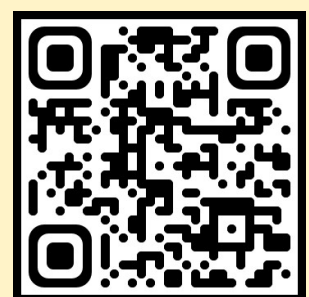
02

북큐레이션 퀴즈 참여 이벤트

큐레이션 퀴즈에
참여해 보세요!

대상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직원

방법 독서포털의 퀴즈 이벤트 참여



퀴즈 참여 페이지
바로가기

추첨을 통해

배달의민족 상품권
1만원권 증정!

배달의민족
상품권
10,000원

20명

문의: 031-670-5505

1. 다른 우리가 만나면 (가족)

가족, 서로 다른 존재가 함께 살아가며 배우는 사랑과 이해에 관한 이야기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래 (디파초)

(안성) 873 디993 ㅅ강



"우리는 함께 살기도 하며, 헤어지기도 하는 걸까?"

다양한 가족의 모습.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

하루종일 네 생각 (박아림)

(안성) 813.8 박473ㅎ



"사랑이 머무르자, 세상이 야옹이 됐다"

사랑하는 존재가 생긴 뒤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존재를 닮아 보이는
사랑스러운 마음을 담은 이야기

봄이랑 돌이랑 (곽민수)

(안성) 813.8 곽825보



시각장애견 봄이와 유기견 돌이의 우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는 이야기

괜찮아 괜찮아 (이토 히로시)

(안성) 중앙 833.8 이744 ㄱ심



할아버지에게 받은 따뜻한 격려를
마음에 품고 성장한 아이가,
시간이 흘러 그 사랑을
다시 가족에게 전하는 이야기

2. 시간이 남긴 이야기 (역사)

역사적 사건을 통해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의 우리를 돌아보는 이야기

마음을 전하는 그림책 (고만옥)

(안성) 813.8 고431ㅁ



**"우리가 직접 겪지 않았더라도,
이 아픔들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

서로 다른 시대와 공간에서
사회적 참사를 경험한 이들이
그림책을 통해 상처와 위로를 나누며
마음을 전하는 이야기

옥춘당 (고정순)

(안성) 813.8 고611ㅇ



**"떠난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게 참 많다.
까먹은 시간만큼 나는 나이를 먹었다."**

'옥춘당'에 담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추억.
떠난 뒤에도 오래도록 남는
사랑과 그리움을 담은 이야기

오징어땅콩전 (고혜진)

(안성) 813.8 고654ㅇ



"힘으로 행하는 정의는 폭력일 뿐이다."

사소한 오해와 편견이 전쟁으로 번지는 과정을
유머와 풍자로 그려내며 전쟁의 아이러니와
평화의 의미를 되묻는 이야기

전쟁과 나 (유은실)

(안성) 813.8 유536ㅈ



전쟁을 상상하며 평범한 일상에서
불안을 느끼는 아이의 시선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

3. 사랑은 떠난 뒤에도 (이별, 죽음, 사랑)

사랑하는 존재와의 이별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

걱정마, 나는 강아지별에서 잘 지내 (수수아)

(안성) 813.8 수856ㄱ



"널 기다리는 시간도 행복했어!"

강아지별에 간 반려견과 주인이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을
따뜻하게 담아낸 이야기

여전히 나는 (칼리, 다비드)

(안성) 883 칼257ㅇ정



"여전히 당신의 미소를 보고 싶어"

사랑하는 이가 떠난 뒤에도
함께한 추억을 품고 일상을 살아가며,
이별의 슬픔에 잠기지 않고 다시 나아가는 이야기

로그인, 동생을 만나러 갑니다 (고수산나)

(안성) 813.8 고489ㄹ



"AI가 만들어 낸 존재는 떠난 이를 대신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뒤 남겨진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며
읽어 볼 이야기

할아버지의 한 달 (도현순)

(안성) 813.8 도727ㅎ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에도
슬픔 대신 사랑과 추억을 남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야기

4. 나를 응원하는 법 (자아, 성장, 변화)

성장과 변화를 겪는 인물을 통해 내가 원하는 삶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

잠자 (경자)

(안성) 813.8 경226ㅈ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건 잘못된 걸까?"

자신의 모습을 바꾸도록 강요받는 잠자를 통해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

길을 찾고 있어 (김도연)

(안성) 813.8 김398ㄱ



"나는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걸까?"

길을 잃고 헤매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머물 자리와 나아갈 방향을 찾아가는 이야기

다른 우리 (신나라)

(안성) 813.8 신595ㄷ



"다르기에 더 멀리 갈 수 있는 우리"

서로 달라 부딪히던 부딪치던 두 존재가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름을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는 이야기

소이의 뽀뽀 (장재연)

(안성) 813.8 장492ㅅ



"열심히 하는 건 나도 할 수 있잖아."

서로를 향한 노력과 응원이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책

사서의 책장

사서가 건네는 그림책

나는 그림책을 산다. 그것도 아주 많이. 도서관에서도 개인적으로도. 다 큰 어른이 왜 그림책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아직도 그림동화책은 어린이들만 읽는 책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 나는 아니, 누군가는 왜 그림책을 읽고 또 사는지에 대해.

그림책은 글이 짧고 그림이 많다. 우리가 동화책을 '아동용'이라고 생각하는 큰 이유다.

나이를 먹었다고 다 어른일까. 몸은 컸지만 우리 맘속엔 아주 작은 어린아이가 산다.
사는 게 버거워도 어른답게 참고 버틸 수 밖에 없는 우리 마음속 어린아이에게 그림책이 필요하다.

책을 읽는 것은 좋다. 하지만 긴 책을 읽는 것은 버겁고, 혹은 시간이 없다.
때때로 주절주절 늘어놓은 글보다, 하나의 문장이, 혹은 아름다운 그림 한 장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다. 그 힘은 가끔 고전 명작이 주는 울림보다 더 강렬하고 직관적이다.

그림책은 우리 마음의 심연을 건드리고, 파문을 일으키고, 상처를 치유한다.

그 파문이 우리를 성장의 세계로 인도한다.

내 안에 숨어있는 어린아이에게 그림책을 통해 수줍게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

그 손이 어찌면 우리를 성장의 세계로 인도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나는 그림책이 좋다. 그림책을 통해 내 안의 나를 만나는 과정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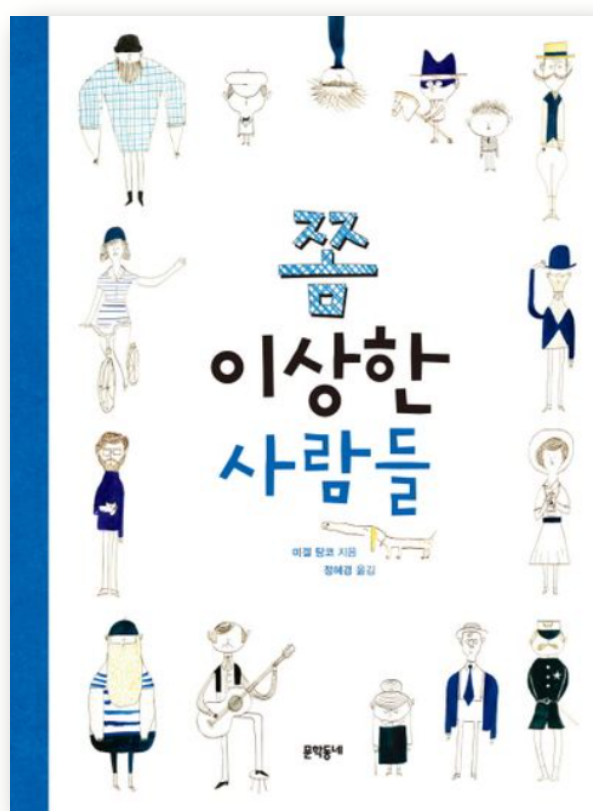
여기 내가 좋아하는 그림책 4권을 소개해 본다. 당신도 그림책과 친해질 수 있기를.....

「어른에게도 그림책이 필요하다!」 - 도서관 운영지원팀 박희인



내 안에 나무
코리나 루켄

843 루752ㄴ김



잠 이상한 사람들
미겔 탱코

863 탕396ㅈ정



산다는 것은
글라드, 테레사

859.7 글796ㅅ이



비에도 지지않고
미야자와 겐지

831.6 미819ㅂ박